

팬데믹 Pandemic 과 인포데믹 Infodemic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 /
예방의학전문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인 서장훈은 징크스가 많다. 오죽하면 그의 나무위키(한국어판)¹⁾에 ‘결벽증’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선수의 징크스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을까. ‘냉장고에 음식을 종류별로 열을 똑바로 맞춰 놓고’, ‘집에 들어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내야’ 한다며 ‘샤워만 1시간 가까이’ 한다는 그. 이런 행동은 개인에게 국한되어 그 자신에게 심적 안정과 자신감을 주지만 대중이 따라 하지는 않는다. 단지 별난 행동으로 여길 뿐 사회적 파장은 거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강에 관한 ‘잘못된 믿음(false belief)’이나 ‘미신’ 등은 다르다. 한센병은 BC 6세기 고대 인도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오래된 질병으로 전파가능성이 낮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비치명적 만성 감염병이다. 그러나 고대 이후 하늘이 내린 형벌, 즉 천형(天刑)이라 불렸고, 이런 잘못된 믿음이 차별과 편견, 사회적 낙인으로 남아 오늘날 살아가는 한센인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단편소설 『바캉스』²⁾는 21세기를 사는 주인공 피에르가 과거 프랑스 파리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이다. 그는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과 분수, 우아함과 고상함, 화려한 실내장식,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채소, 과일 등을 꿈꾼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1666년 파리는 페스트, 콜레라, 결핵 등 전염병이 만연한 곳이라며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한다. 클로로퀸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살균용으로 물 대신 알코올 성분 음료를 권한다. 가보니 그를 맞이하는 것은 각종 냄새, 지린내, 파리떼, 쓰레기, 쥐와 먹이 찾는 돼지,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 독한 곰팡내, 사형장, 시체와 까마귀들이었다. 소셜 속 환경은 허구가 아닌 사실에 가깝다.

영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런던은 뼈 수거인, 냄마주이, 개똥 수거인, 분노 수거인 등 10만 청소부들의 도시였다. 마침 발생한 콜레라에 대해 300여 년 전 발생한 흑사병으로 시체로부터 독기가 퍼져 있다거나 묘지를 파헤쳤기 때문이라는 사이비 과학 언어로 표현한 귀신 이야기가 만연해³⁾ 있었다. 방 하나에 다섯 가족이 사는 등 초만원이었고 실내에서 가축까지 길렀다. 템스강은 분노로 가득 찼다. 잉글랜드 공중위생개혁에 공헌한 사회개혁가 채드윅, 명성 높은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조차 미신, 즉 질병이 나쁜 공기(miasma)에서 유래한다고 믿었다. 시민들은 물론 주요한 인물들도 믿었기에 나쁜 공기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나 노력을 기울였다. 악취를 근절하고 오물 구덩이를 덮어 없애는 등 하수도 정비사업에 치중하였다.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처도 공해 제거 등의 방법⁴⁾이 쓰였다.

의사 존 스노우(John Snow)는 똑같이 악취에 노출되는 ‘벽’ 사이의 주민 중 누구는 감염병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현상에 착안하여 식수 수원과 수도 회사에 따라 발병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역학적 접근으로 특히 콜레라가 상수원 오염에 의한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사실⁵⁾이 밝혀질 때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던 독기론(miasma theory)은 잘못된 믿음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 <https://namu.wiki/w/%EC%84%9C%EC%9E%A5%ED%9B%88>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이세욱 역, 2005, 『나무』, 열린 책들
 3) 스티브 존스 저, 김명남 역, 2021, 『감염도시』
 4) 제니퍼 라이트 저, 이규원 역, 2020,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산처럼
 5) 조지무소 편저, 와키무라 고헤이 감수, 서수지 역, 2020,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사람과 나무사이

깊이 보기

: 인류 역사의 한 줄기를 함께한 감염병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던 14세기 유럽에서는 가래톳페스트가 유행하였다. “시궁창에 살면 페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며 시궁창 위치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 과학적 근거는 따지지 않았다는 웃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거리의 시체 치우기, 물 끓여 마시기, 목욕하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마법의 약 먹기, 에메랄드 부숴 먹기, 계란·과일·채소 먹기, 생양파 잘게 썰어 집안 곳곳에 두기, 개구리 터뜨리기 치료법, 비둘기 치료법, 무화과와 양파 치료법 등은 비교적 낭만적이다.

만병통치약으로 믿었던 좋은 와인 마시기, ‘공기의 영혼’이 환자 몸에서 빠져나와 쳐다본 사람 몸으로 들어간다고 믿어 ‘병든 사람 쳐다보지 않기’도 있었다. 불편한 ‘피 뽑기와 대변 찌질’에 이어 자신의 ‘오줌/고름 마시기’ 등 지금의 의학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치료법이 난무했다. 의사들은 새가 역병을 쫓는다는 믿음으로 새 모양의 가면을 써 ‘부리의사’라 불렸다 한다.

새로운 분야에 접하면 무지하다. 첫 정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신뢰한다. 선입견이 사고를 강화, 사고가 다시 선입견을 강화한다. 코로나 국면에 정보의 홍수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한 사례가 많다. 전염병 유행 등 사회 불안이 커지면 미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죽은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 건강에 좋을 리 없다며 백신 맞기를 거부하다 홍역을 창궐하게 만든 해외 사례나, 약 안 쓰고 아이 키운다는 속칭 ‘안아키’ 등⁶⁾은 과학적 근거에 반하고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시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새로운 분야에 접하면 무지하다. 첫 정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신뢰한다. 선입견이 사고를 강화, 사고가 다시 선입견을 강화한다. 코로나 국면에 정보의 홍수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한 사례가 많다.

6) 오후 지음, 2021, 『말씀니까? 믿습니다.』 동아사이

세계보건기구 누리집⁷⁾은 COVID-19 항목의 ‘잘못된 믿음’ 사례를 ‘미신종결자/파괴자(mythbuster)’란에 소개하고 있다. 메탄올, 에탄올, 표백제 음용이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고,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뜨거운 햇빛에 노출, 알코올 음용, 비타민이나 후추 뿌리기 등은 코로나에 무효하다. 수영이나 물을 통한 감염, 신발을 통한 전염 가능성은 낮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라 말한다. 바로 인포데믹(Infodemic)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신화나 잘못된 믿음이 유행처럼 도는 현상을 말한다. 여론 호도, 잘못된 정보는 집단발병 때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건당국 또는 공중보건대응을 약화시키고 집단발병을 장기화할 수 있다. 이에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험 기반 또는 증거 중심 분석(risk-and evidence-based analysis)의 체계적 사용을 통해 인포데믹 관리를 해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리더십 - 지역사회 우려와 의문에 관심, 위험을 이해하고 보건전문가의 조언에 경청, 잘못된 정보에 대한 회복력을 키움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화와 관련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 00도에서 일어난 급성중독 사건⁸⁾이 그 한 예다.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희석, 분무 소독하였다. 본인과 자녀 2명이 복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이란에서도 메탄올이 예방과 치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2,800명이 중독되고 48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⁹⁾가 있었다. 유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인포데믹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건강 피해로, 그 규모는 팬데믹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디지털시대에 잘못된 정보의 전파 능력은 매우 빠르고 넓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신화나 잘못된 믿음이 유행처럼 도는 현상을 말한다.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바이러스와만 싸우는 게 아니다. 음모론이나 인터넷의 부정적·선동적 (뱀)글과도 싸운다”는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의 말을 새겨야 한다.

7)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50600004>
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23039